

마음에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게 된다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중에서

이 글은 목회와 신학 자료실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목회와 신학 - <http://www.durano.com/moksin/default.asp>]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 주셨다.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을 필요한 데 나눠 주라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몰랐지만, 그것만큼은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다. 앞에서도 언뜻언뜻 속내를 비쳤지만, 나는 정말 역경을 딛고 살아왔다. 내 유년 시절은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들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지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문봉주가 이렇게 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내의 돈을 빌어서 약혼반지를 샀을 때 자녀들에게만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형편껏 큰 딸 시집보낼 밑천으로 얼마쯤 모아 놓은 것인데, 아내와도 상의해야 할 것이고...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갔다. 선뜻 “예”가 나오지 않았다. 그날은 그렇게 어물어물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말았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오는데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뒤따라 왔다. 기도가 되지 않았다. 영적 호흡이 막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며칠 뒤 하나님께 필요한 곳을 알려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내 저축한 것을 바치겠노라고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안요한 목사님의 맹인교회와 한동대학교에 헌금하라는 응답을 주셨다.

그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는 의외로 완강했다.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자식들의 결혼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돈이니 함부로 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 시험이 아내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 아내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나 혼자서 서울로 송금해 버리면 그만인 일이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손을 털어 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러고 나면 나는 아내를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로 만드는 것밖에는 아니지 않겠는가. 나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었다.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아내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서 돌아 와서는 아내에게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드는지 물어보기를 반복했다. 그런 지 3주 정도 흘렀을 때 아내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했다.

마침 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일시 귀국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날 아내와 나는 안요한 목사님을 찾아가기로 일정을 잡았다. 그 전날 저녁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그날은 군복무 중인 아들과 저녁 약속을 한 날이었는데, 일단 저녁을 먹고 나서 이야기를 다시 하기로 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 외출이 취소가 됐나, 사고가 생겼나 하고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아들이 나타났다. 그런데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안경도 쓰지 않고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멎들어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야구 시합을 했는데, 야구공을 맞았어. 안경도 박살났고... 병원에서는 실명 안 된 게 다행이란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는 “아이고, 하나님…”을 찾았다. 다음날 헌금을 가져다주기로 한 곳이 맹인교회가 아닌가! 하나님의 경고가 어찌나 무서웠든지 아내와 나는 다음날 부리나케 맹인교회로 달려갔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게 좋은 줄 알지만 반드시 그럴지 않다. 굉장히 두렵고 떨린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온갖 것을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감당하기가 꽤 벅차다. 너 이거 하지 마라, 너 거룩해져라, 너 좋아하던 그것 끊어 버려라,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만둬야 하고 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적은 것이나마 내 모든 저축을 주님께 바칠 수 있었겠는가.

-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 중에서